

경제

보해양조, 형제회사가 샀다

임건우 회장 동생 성우씨 경영 '창해에탄올'이 인수 저축銀 사태 경영위기 한숨 돌려... 내달 주총서 확정

광주·전남 대표기업 보해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정(에탄올) 제조 회사인 창해에탄올에 인수됐다. 보해양조는 18일 "보해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외부자금 유입이 절실해 형제사인 창해에탄올의 인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해양조는 창업주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장남 임건우 회장과 3남 임현우 대표이사가 경영해왔지만 보해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16일 임원들과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2남인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이 보해양

조 새 주인이 됐다. 하지만 보해양조는 형제간 주인만 바뀐 분 향토기업으로서 그 명맥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해양조는 다음달 2일 주주총회까지 경영 지배인인 임효섭(창해에탄올 대표이사)·유근철(DMC 비상근 감사)씨 체제로 운영된 후 정식으로 대표이사직을 선임할 예정이다. 최근 보해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기를 겪어왔다. 보해양조를 인수한 창해에탄올은 보해양조와는 별개 법인으로, 연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16일 임원들과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2남인 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이 보해양

창해에너지이링, 창해PNG, 창해인터네셔널, 창해웰빙푸드 등 5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연결이익잉여금이 43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알짜 회사로 창해그룹에 속해 있다. 또 창해에탄올 임성우 회장은 보해 창업주 고(故) 임광행 회장의 차남으로,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과 임현우 사장은 형제간이다. 임성우 회장은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과 함께 보해를 운영하며 소수 '김삿갓' 열풍에 기여했으며 1991년부터 보해양조와 창해에탄올과의 운영을 병행했다. 계열 분리한 뒤 2003년 주정 출고량으로 진로발효에 이어 업계 2위를 달리는 특화된 주정업체다. 지난 1966년 설립한 창해에탄올은

무는 "형제사로서 창업주의 가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책임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보해양조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불가피하게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문제를 교훈 삼아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새롭게 개선할 방침"이라며 "현재 보해의 영업 부문은 정상이고 단지 유동성이 문제이므로 조기 정상화를 통해 보해가 지역 상징 기업으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해에탄올은 이번 문제를 교훈 삼아 전문경영인을 투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보해양조 경영 정상화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난 3월말 현재 총자산 2707억원, 총부채 1779억원 규모다. 1분기 매출액은 330억원, 영업이익 21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스크바 '뉴 리오' 신차발표회 한국 기아자동차 러시아 판매법인이 17일 저녁 모스크바 시내 스위스 호텔 대연회장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공장에서 생산되는 현지 전략모델인 '뉴 리오'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임탁욱 기아차 러시아 판매법인장, 이윤호 주 러시아 한국 대사, 피터슈라이어 기아차 디자인 총괄 부사장,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자동차 국장. /연합뉴스

자동차 공인연비 최대 30% '뺑뺑기'

정부, 주행여건 반영 새 방식 도입키로

국내에 시판 중인 자동차의 공인연비가 최대 30.3%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실제 주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되는 12개 차종의 공인연비는 실제연비보다 평균 23.7% 과장됐다. 가솔린, 디젤,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등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의 실제연비가 공인연비보다 낮았다. 차종별로 소형차 모닝의 공인연비는 18.0km지만 실제연비는 12.7km였다. 공인연비가 17.8km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실제연비는 12.4km였다. 소나타는 공인연비가 10.7km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8.7km였고, 카니발

디젤은 공인연비가 12.9km지만 실제연비는 9.7km에 불과했다. 이는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가까운 연비측정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지난 2006년 개발해 도입한 5사이클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를 공인연비와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 환경보호국(EPA)의 5-사이클 방식을 적용한 새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5-사이클은 시내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 저온 조건(-7℃) 하 주행 등 5가지 상황을 감안해 연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험 결과,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인연비가 평균 20%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연비표시 방식과 함께 자동차의

자동차 공인연비와 5사이클 적용 연비 차이

구분	공인 연비	5-사이클		
		연비	증감	
가솔린	모닝	18.0	12.7	-29.4
	아반떼HD	15.2	12.0	-21.1
	소나타	10.7	8.7	-18.7
디젤	오피러스	9.2	8.4	-8.7
	아반떼HD	16.5	13.2	-20.0
	산타페2.0	12.6	10.5	-16.7
LPG	카니발	12.9	9.7	-24.8
	그랜디스타렉스	10.5	7.8	-25.7
하이브리드	카렌스	10.0	7.5	-25.0
	토스카 K5	8.6	6.7	-22.1
결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LPI)	17.8	12.4	-30.3
결과	저렴률(%)			-23.7

(단위: km/ℓ, %)
(자료: 이학재국회의원실)



광주시-전국 소비자단체 정보교류 MOU

광주시가 전국 소비자단체와 물가 정보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주요 생활품 가격 비교조사를 통해 지역 물가 하락을 주도한 광주시는 전국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18일 "이날 오전 광주 NGO센터에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 소비자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뒤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을 토의하고 물가정보교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번 모임을 주최한 광주시 소비자시민모임 공정화 대표,

서울시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부산시 한국부인회 대표, 인천시 소비자연맹 등 전국 주요도시 소비자단체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7개월 연속 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지역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매달 1차례 각 도시의 주요 물가정보를 교환·공개하기로 했으며, 광역시도에 국가차원의 '지방물가모니터링센터' 설치와 연2회 정기적인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중소 동반 성장 협력사 기술 컨설팅

중진공-오택캐리어 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진수)와 오택캐리어(주), 구일공조 등 협력사는 17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캐리어 광주공장에서 협력사의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위한 '대-중소 동반 성장 협력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중진공과 캐리어는 앞으로 2년간 4차례에 걸쳐 캐리어 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한다. 중진공이 컨설팅 소요비용의 55%(업체당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캐리어는 협력사가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의 15%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광주·전남 5억원 등

전국적으로 90억원의 예산으로 대-중소 동반성장 협력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 062-600-3031. 한편 오택캐리어는 광주 하남산단에 소재한 에어컨 전문업체로 미국의 캐리어사와 대우그룹의 자본 참여를 통해 지난 1985년 대우캐리어(주)로 설립됐다. 1986년 광주공장을 세워 에어컨, 공기시스템 장비를 생산·판매해왔으며, 2000년 캐리어가 대우의 지분을 전액 취득해 다국적기업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TC) 그룹' 소속이 됐다. 올해 초 스타캐리어(주)오택이 인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원산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추석예를 앞두고 다습달 11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최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3000여명이 투입된다. 전남지원은 이달 27일까지 단속정

보 수집과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부정유통신고 1588-8112. /박정욱기자 jwpark@

코스피지수 1,860.58 (-32.09)
코스닥지수 507.80 (+1.36)
금리 (국고채 3년) 3.56% (+0.02)
원·달러 환율 1,074.00원 (+2.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azim.kr

제1회 아줌마 축전

2011.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첫째 날 9월 2일(금)

남진, 현숙, 조항조, 윤대규, 박승우

식전공연 | 농산물개장식 | 아줌마축전개막식
축하공연(가정과 비보이의 만남) | 아줌마팔씨름대회 | 벨리댄스경연(예선) | 아줌마영상편지 | 유명가수축하콘서트

둘째 날 9월 3일(토)

해바라기, 유리상자, 백영규

시·군예술탄공연 | 호남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팔도시투리대회(속풀이발연대) | 다문화가족 정기자랑대회(예선) | 벨리댄스경연(결선) | 아줌마시낭송대회 | 기술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셋째 날 9월 4일(일)

김종철(요들송)

※9월 1일(목) | 전아재 | 품바경연대회(예선) | 아줌마가요제(예선)
(주최사 사정에 의해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물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

이벤트 참가자 전원 상품권 제공/입장객 매일 1천명 경품제공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주관방송사 | CMB 광주방송 | ALIOTTV

후원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농림수산식품부